****

**난롯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작은 정성**

어찌 보면 잭과 케이트 아이젤은 불을 끄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-그들이 불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말입니다.

두 사람은 2009년 제피르 포인트 장로교 컨퍼런스 센터 난롯가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 케이트는 센터의 컨퍼런스 매니저였고, 목사직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잭은 건물 관리 담당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

"우리가 눈 오는 겨울밤 난롯가에서 긴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키웠기 때문에, 불 앞에 앉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해요"라고 케이트는 회상했습니다.

잭의 경우, 두 번째로 택한 직업인 목회직을 하는 동안 거의 임시 사역만 했었기 때문에, 과도기적 상황에 내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. 잭은 미국 서부 12개의 노회에서 25년 넘게 15번 임시 목회직을 맡았습니다. 그곳에서 하나님은 잭의 은사를 사용하셔서, 각 교회가 도전받고 종종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.

요즘 잭과 케이트 두 사람은 은퇴 이후 삶으로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주의 깊은 계획이 요구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을 꺼야하는 일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. 케이트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. 두 사람은 넉넉지 않은 잭의 자산에 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.

"우리가 처음 은퇴했을 때, 생활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"라고 케이트는 말했습니다. "종종 저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요. '지금 정말 우유 한 팩을 살 수 있을까?' 잭의 사회보장 연금과 퇴직연금은 너무나도 적어서 우리가 공과금을 내고,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"

장로교 목회자의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잭은 [장로교 연금국](https://www.pensions.org/)의 [지원 프로그램](https://www.pensions.org/your-path-to-wholeness/assistance-program)을 통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종종 동료들에게 권하기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그는 단지 어느 날 자신에게도 그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.

여러분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기부로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, 아이젤 부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소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"오래전부터 미국장로교는 안수 여부와 상관없이 충실하게 교회를 섬긴 분이 현역 사역을 끝내고 은퇴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"라고 프로그램 운영 부매니저인 루카스 맥쿨은 말했습니다. "은퇴 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잭과 케이트 같은 은퇴자가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"

"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, 제가 봉사하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헌금을 홍보하는 일은 제게 늘 중요합니다"라고 잭은 말했습니다. "저는 헌금이 제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조명하고 이 특별히 관대한 기부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해 왔습니다.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, 저는 이 헌금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"

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잭과 케이트의 난롯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.

***기도합시다:***

*사랑이 많으신 하나님, 빛의 구유로 저희를 이끄시어 저희에게 주신 당신의 완벽한 선물을 보게 하소서. 주님의 은총으로, 모든 이들이 당신의 사랑의 선물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연민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소서.* ***아멘****.*